



부정극어와 양태 구문 해석



이정훈(서강대), 명정희(서강대)



목차

1. 서론
2. 존재 양화사 '아무'와 '도' 그리고 부정문
3. '아무도'와 양태 구문 해석
4. 결론

1. 서론

연구 목적: (1)에서 제기되는 [문]1과 (3)에서 제기되는 [문]2에 대한 통사의미론적 해답 제시

(1) 부정극어

- 가 아무도 그 책을 *(안) 읽었다.
- 나 우리는 그 책을 아무에게도 *(안) 권했다.



💬 '아무도'는 왜 부정문에만 나타나는가?

💬 왜 '아무도'는 부정극어인가?

1. 서론

연구 목적: (1)에서 제기되는 [문]1과 (3)에서 제기되는 [문]2에 대한 통사의미론적 해답 제시

(2) 양태 구문의 중의성

가 철수가 하루 종일 영화를 볼 수 있다. → [인식], [행위]

나 철수가 하루 종일 영화를 볼 수 없다. → [행위]

철수가 하루 종일 영화를 볼 리 없다. → [인식]

(3) 부정극어와 양태 구문 해석

가 아무도 하루 종일 영화를 안 볼 수 있다. → [인식], *[행위]

나 철수가 하루 종일 아무 영화도 안 볼 수 있다. → [인식], [행위]

다 아무도 여기에 올 리 없다. → [인식]

라 철수가 아무 것도 볼 리 없다. → [인식]

💬 (3가)와 (3나)의 차이는 왜 나타나는가? 또 이러한 차이가 (3다)와 (3라)에서는 왜 나타나지 않는가?

1. 서론

접근법

💬 통사의미적 접근: 어휘항목의 의미와 통사구조 중시

💬 구체 통사론: 추상적 구조를 배제한 구체적 통사구조 지향

-통사구조는 형태소, 단어 등으로 존재하는 어휘항목으로 형성하는 것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함

-이에 맞추어 변형(이동, 삭제, 삽입)은 제약적으로 인정. 즉 실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.

2 '아무'의 의미를 양화사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, '도'와 결합한 '아무도'의 의미를 바탕으로 '아무도'가 부정극어인 이유를 설명

3 양태 구문의 통사구조와 부정극어 인허를 바탕으로 (3가)~(3라)의 현상을 설명

4 내용 요약, 남은 문제 제시

2. 존재 양화사 '아무'와 '도' 그리고 부정문

2.1. 존재 양화사 '아무'

(5) 아무도 {오지 않았다, 안 왔다} $\rightarrow \forall x [\text{사람}(x) \rightarrow \sim \text{오다}(x)]$

cf. 모두가 왔다. $\rightarrow \forall x [\text{사람}(x) \rightarrow \text{오다}(x)]$

▶ '아무도'가 보편 양화사에 해당함을 잘 보여줌. 그렇다면 '아무'는 보편 양화사인가?

(6) 가 아무도 오지 않았다.

나 *모두도 오지 않았다. (모두가 오지 않았다.)

다 아무나, 아무라도

라 *모두나, 모두라도

2. 존재 양화사 '아무'와 '도' 그리고 부정문

2.1. 존재 양화사 '아무'

💬 대안: 존재 양화사로서의 '아무'

아무도 {오지 않았다, 안 왔다} $\rightarrow \forall x [\text{사람}(x) \rightarrow \sim \text{오다}(x)]$ ((5) 참고)

= $\forall x [\neg \text{사람}(x) \vee \sim \text{오다}(x)]$

= $\sim \exists x [\text{사람}(x) \wedge \text{오다}(x)]$

→ 존재 양화사 ($\exists$)는 적어도 하나를 나타냄. 즉, $\exists \geq 1$

→ 아래에서 보듯이 '아무'도 마찬가지임.

(7) 아무($\exists$) ≥ 1

가 (과자를 고르는 아이에게) 아무 거나 {하나만, 두 개만, 세 개만, ...} 골라.

나 (음식을 청하며) 아무 음식이라도 주세요. 있는 거 다 주시면 좋고요.

2. 존재 양화사 '아무'와 '도' 그리고 부정문

2.1. 존재 양화사 '아무'

💬 대안: 존재 양화사로서의 '아무'

'아무'는 단독으로 쓰이기도 했었음(이금희 2013: 72-76 참고)

- (8) 가. 늑이 니로되 내 동싱이 동궁 침실의 이시니 늑관이 보아도 아모의 동싱이라 호고 핀잔
될 것이니 아뵈 보아도 고이호고 뵈노라 호더라 <계축하16a, 16--년>
- 나. 쑤 원호건대 영창대군 니의와 목스 김 아모 진스 김규 유희 김선 현녕 심명세 현녕 김효
남 <서궁일기75a, 16--년>
- 다. 기운이 업서 헝동 거지를 림의로 못호고 아모가 와서 욕을 호고 썩리고 가졌든 물건을
썩셔가도 <독립신문, 1896>
- 라. 한번 만져만 보아도 산 사람의 병이 된다오 인저는 아모가 알튼지 죽든지 나는 도모지 상
관치 말니다 <구마검3> (이금희 2013: 72~76의 예)

2. 존재 양화사 '아무'와 '도' 그리고 부정문

2.1. 존재 양화사 '아무'

💬 대안: 존재 양화사로서의 '아무'



'아무($\exists$) ≥ 1 '? '아무'가 **하나 이상**인 것은 맞지만, **전체도 나타낼 수 있는가?**

(7) 나 (음식을 청하며) 아무 음식이라도 주세요. **있는 거 다** 주시면 좋고요.

- '아무($\exists$) ≥ 1 '라고 해야 부정되었을 때 '전혀 없음'으로 해석되는 것이 보장됨.
예를 들어 (5) 아무도 오지 않았다 >> '한 명 이상'이 부정되므로 온 사람이 0명으로 해석됨.
'아무'가 전체를 나타내지 않는다면, '아무도 오지 않았다'는 온 사람이 0명인 경우와 모두가 온 경우로도 해석되어야 함.

2. 존재 양화사 '아무'와 '도' 그리고 부정문

2.1. 존재 양화사 '아무'

💬 대안: 존재 양화사로서의 '아무'



'아무($\exists$) ≥ 1 '? '아무'가 **하나 이상**인 것은 맞지만, **전체도 나타낼 수 있는가?**

- '아무'가 일반적인 대화 상황에서 '모두, 전부'로 해석되지 않는 것은? 대화 함축에 의한 것임.
-즉, 척도(scale)에서 '아무'는 낮고 '모두, 전부'는 높는데 철도에서 낮은 '아무'가 선택되면 척도에서 높은 '모두, 전체'는 성립하지 않음이 함축됨(Horn 2004, Huang 2014 등 참고)
-이러한 대화 함축은 (7나) 및 아래 (9)에서 보듯이 취소될 수 있음

(9) {아무나, 아무라도} 오세요. 모두 오시면 제일 좋고요.

💬 '아무'를 존재 양화사로 보는 시각은 이영헌(1983)에서도 확인됨. (특칭 양화사)

2. 존재 양화사 '아무'와 '도' 그리고 부정문

2.2. '아무-도'와 부정문

💬 '아무($\exists$) ≥ 1 '이므로 아래의 대조가 나타남

- (10) 가 *아무도 왔다.
 나 아무도 안 왔다.

💬 전체와 '아무'의 의미

- (11) 가 전체 $U = \{\text{영이}, \text{민수}, \text{철수}\}$
 나 '아무'의 의미를 집합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.
 $\{\{\text{영이}\}, \{\text{민수}\}, \{\text{철수}\}, \{\text{영이}, \text{민수}\}, \{\text{영이}, \text{철수}\}, \{\text{민수}, \text{철수}\}, \{\text{영이}, \text{민수}, \text{철수}\}\}$

2. 존재 양화사 '아무'와 '도' 그리고 부정문

2.2. '아무-도'와 부정문

- ☞ '아무'가 {영이}인 경우, 여기에 '-도'가 어울리면 {영이, 민수}, {영이, 민수, 철수}등이 됨.
- ☞ 그런데 이들은 (11나)에서 보듯이 이미 '아무'의 의미. '도'가 추가됨으로써 발휘되는 기능이 없음.

따라서 '아무'는 하나 이상의 의미(존재 양화)를 나타내기 때문에 '도'가 나타날 동기가 없음.

'아무'가 {민수}이거나 {철수}인 경우,

{영이, 민수}, {영이, 철수}, {민수, 철수}인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.

'아무'가 {영이, 민수, 철수}인 경우, 여기에 '도'가 어울리면 '도'의 첨가/추가 기능이 발휘될 수 없음.

{영이, 민수, 철수}는 전체 집합(U), U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첨가, 추가할 수 없기 때문

'아무'와 '도'가 어울리면 '도'의 의미가 발휘되지 않음. 다시 말해 '아무'와 '도'는 함께 어울릴 동기가 없음. 따라서 (10가)는 성립하지 않음.

2. 존재 양화사 '아무'와 '도' 그리고 부정문

2.2. '아무-도'와 부정문

💬 (10나) '아무도 안 왔다'의 의미는 아래에서 보듯이 '온 사람 없음'

$$\begin{aligned} (12) \quad & \sim[(\text{영이가 옴}) \vee \dots \vee (\text{영이와 민수가 옴}) \vee \dots \vee (\text{영이와 민수와 철수가 옴})] \\ &= [\sim(\text{영이가 옴}) \wedge \dots \wedge \sim(\text{영이와 민수가 옴}) \wedge \dots \wedge \sim(\text{영이와 민수와 철수가 옴})] \end{aligned}$$

$\sim(\text{영이와 민수가 옴}) = \sim(\text{영이가 옴}) \vee \sim(\text{민수가 옴})$

-이 경우 '영이가 오고 민수가 안 옴'이 허용됨

-그러나 앞에서 ' $\sim(\text{영이가 옴})$, $\sim(\text{민수가 옴})$, $\sim(\text{철수가 옴})$ '이 연언($\wedge$)으로 접속되어 있으므로, '영이가 오고 민수가 안 옴'이 성립하지 않음.

-그 결과, ' $\sim(\text{영이가 옴}) \vee \sim(\text{민수가 옴})$ '은 ' $\sim(\text{영이가 옴}) \wedge \sim(\text{민수가 옴})$ '으로 해석되어야 함

그 결과 '아무도'는 부정극어의 성격을 띠게 됨.

3. '아무도'와 양태 구문 해석

3.1. 양태 구문의 통사구조와 중의성

- (13) 가 철수가 하루 종일 영화를 볼 수 있다. → [인식], [행위] (= 2가)
나 철수가 하루 종일 영화를 볼 수 없다. → [행위]
철수가 하루 종일 영화를 볼 리 없다. → [인식] (= 2나)

어휘항목과 통사구조

- '있다', '없다': 존재(한 자리 술어)와 소유(두 자리 술어)
 - '수': 가능성
 - '리': 가능성, 단 존재(한 자리 술어)의 '없-'에 의해 선택되어야 함

3. '아무도'와 양태 구문 해석

3.1. 양태 구문의 통사구조와 중의성

어휘항목과 통사구조

➤ 통사구조(정대호 2007, 이정훈 2020 등 참고)

- (14) 가 [[철수가 영화를 볼 수] 있-] → 가능성의 존재, [인식]
나 [철수가 [[영화를 볼 수] 있-]] → 가능성 소유, 능력 [행위]

- (15) 가 [[철수가 영화를 볼 리] 없-] → 가능성의 부재, [인식]
나 [철수가 [[영화를 볼 수] 없-]] → 가능성 미소유, 무능 [행위]

3. '아무도'와 양태 구문 해석

3.2. '아무도'와 양태 구문

💬 '-을 수 있-'의 경우

- (16) 가 아무도 하루 종일 영화를 안 볼 수 있다. → [인식], *[행위] (= 3가)
나 철수가 하루 종일 아무 영화도 안 볼 수 있다. → [인식], [행위] (=3나)

- (17) 가 [[아무도 영화를 안 볼 수] 있-] → 부정극어 인허 가능, [인식]
나 *[아무도 [[영화를 안 볼 수] 있-]] → 부정극어 인허 불가, *[행위]

- (16가) 주어 자리에 부정극어 나타나면 [인식]만 가능
➤ 이는 (17)에서 보듯 부정극어 인허와 양태 구문의 통사구조에 따른 귀결

3. '아무도'와 양태 구문 해석

3.2. '아무도'와 양태 구문

💬 '-을 수 있-'의 경우

- (16) 가 아무도 하루 종일 영화를 안 볼 수 있다. → [인식], *[행위] (= 3가)
나 철수가 하루 종일 아무 영화도 안 볼 수 있다. → [인식], [행위] (=3나)

- (18) 가 [[철수가 아무 영화도 안 볼 수] 있-] → 부정극어 인허 가능, [인식]
나 [철수가 [[아무 영화도 안 볼 수] 있-]] → 부정극어 인허 가능, [행위]

- (16나) **목적어 자리에** 부정극어 나타나면 [인식], [행위] 모두 성립
- (18)에서 보듯이 부정극어 인허와 양태 구문의 통사구조에 따른 귀결

3. '아무도'와 양태 구문 해석

3.2. '아무도'와 양태 구문

💬 '-을 리 없-'의 경우

- (19) 가 아무도 여기에 올 리 없다. → [인식] (= 3다)
나 철수가 아무 것도 볼 리 없다. → [인식] (=3라)

- (20) 가 [[아무도 여기에 올 **리**] 없-] (= 19가)
나 [[철수가 아무 것도 볼 **리**] 없-]] (= 19나)

- 위의 통사구조는 앞서 언급한 '리' 선택 조건에 따른 통사구조
- '리' 선택 조건: 존재(한 자리 술어)의 '없-'에 의해 선택되어야 함

3. '아무도'와 양태 구문 해석

3.2. '아무도'와 양태 구문

 '-을 리 없-'의 경우

- (20) 가 [[아무도 여기에 올 **리**] 없-] (= 19가)
나 [[철수가 아무 것도 볼 **리**] 없-]] (= 19나)

➤ 위의 통사구조에서 부정극어가 인허되려면 (21)의 가정이 필요함

(21) '없-'에 의해 선택된 '리'는 부정극어를 인허할 수 있음

- (22) 가 철수가 올 리 있니?
나 *아무도 올 리 있니?
다 아무도 올 리 없니?

3. '아무도'와 양태 구문 해석

3.2. '아무도'와 양태 구문

💬 '-을 수 없-'의 경우

- (23) 가 [아무도 [[영화를 볼 수] 없-]] → [행위]
나 [철수가 [[아무 영화도 볼 수] 없-]] → [행위]

- (23가): 부정극어 '아무도'는 부정어 '없-'에 의해 인허됨
- (23나): '없-'에 의해 선택된 의존명사 '수'가 부정극어 '아무 영화도'를 인허

3. '아무도'와 양태 구문 해석

3.2. '아무도'와 양태 구문

💬 '-을 줄 모르-'의 경우

(24) 가 나는2 [02 아무 것도 할 줄] 모른다.

→ [행위] (cf. 나는 수영을 할 줄 안다)

나 *나는 [아무도 올 줄] 몰랐다.

→ [인식] (cf. 나는 그가 올 줄 몰랐다)

- (24가): 부정극어가 목적어 자리에 분포하면 '리'와 마찬가지로 '줄'이 부정극어를 인허함
- (24나): 부정극어가 주어 자리에 분포하면 '줄'이 부정극어를 인허할 수 없음
- 같은 형태의 양태 구문이라도 의미에 따라 '-을, 줄, 모르-' 사이의 긴밀성, 통사구조적 특징이 다를 수 있음
- 행위의 '-을 줄 모르-'의 경우 긴밀성 높아 '모르-'의 부정극어 인허 능력이 '줄'에 전수(inheritance)되는 것
긴밀성이 높은 것은 '나는2, 02'와 같은 동지표 및 삭제제를 통해 확인 가능
- 인식의 '-을 줄 모르-'의 경우 어휘항목들 사이 긴밀성 높지 않음, '모르-' 부정극어 인허 능력 전수되지 않음

3. '아무도'와 양태 구문 해석

3.2. '아무도'와 양태 구문

💬 '-을 줄 모르-[행위]'처럼 어휘항목들 사이의 긴밀성이 강한 사례

(25) 가 [[아무도 올 것] 같] -지 않다.

[[철수가 아무 것도 할 것] 같] -지 않다.

나 [[아무도 올 성] 싶] -지 않다.

[[철수가 아무 것도 할 성] 싶] -지 않다.

3. '아무도'와 양태 구문 해석

3.2. '아무도'와 양태 구문

💬 '-을 줄 모르-[행위]'처럼 어휘항목들 사이의 긴밀성이 강한 사례

(26) ㉠ 그는2 [02 아무 것도 이론 바]-가 없다.

㉡ 그는2 [02 아무 것도 이론 것]-이 없다.

➤ (26가), (26나)는 동격 구문 ' 그는 [아무 것도] [이론 바가] 없다', '그는 [아무 것도] [이론 것이] 없다' 일 수도 있으며 이 경국 부정극어 인하는 통상적 사례임(cf. 영이는 [만난 사람이] [한 명도] 없다)

➤ 김영희(1998)의 견해와 통하는 면이 있음

“허가자의 부정 극성어에 대한 허가 범위는 동일절뿐만 아니라 하위절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결론짓게 된다. 그런데 문제는 상위절에 나타나는 허가자가 어느 경우에도 하위절의 부정 극성어를 허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 있다.” (김영희 1998: 286)

(27) 가. 막내는 [유산을 아무 것도 물려받기를] 바라지 않는다. (김영희 1998의 (64ㄱ))

4. 결론

- '아무도'는 왜 부정문에만 나타나는가? 왜 '아무도'는 부정극어인가?

➤ '아무'와 '도'의 의미상 '아무도'는 부정어에만 나타남

- (3가)와 (3나)의 차이는 왜 나타나는가? 도 이러한 차이가 (3다), (3라)에서는 왜 나타나지 않는가?

➤ 양태 구문의 통사구조와 부정극어 인허를 고려하면 이해 가능